

일본 만화 <彼岸島(Higajima)>와 아시아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정치구조와 투쟁

- I. 서론: <피안도> 시리즈와 영화
 - II. <피안도>의 시놉시스와 아시아적 생산양식
 - III. 뱀파이어가 가진 문화적인 상징, 이미지와 용법
 - IV. 좀비와 뱀파이어 그리고 드라큘라의 문법
 - V. 다시 '피안도'
 - VI. 결론: 우리 뱀파이어의 모색
- 참고문헌
ABSTRACT

이호영

초 록

본 논문은 뱀파이어라는 널리 퍼진 이미지가 나타내는 문화적 기호가 일본적 혹은 동아시아적인 생산양식 아래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능성을 보는데 있다. 서구문화를 일찍이 토착화해 온 일본에서 뱀파이어의 이미지를 어떻게 토착화하여 해석하고 새로이 제시하는가를 일본 만화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에 변형과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특정 짓는 생산양식을 말하며, 마르크스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 및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이 경제적 사회구성의 여러 시기로 표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근대역사가 가지는 특이성은 아마도 왕-쇼군-사무라이-농노를 잇는 지역기반의 봉건사회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전면적인 서구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구화가 과연 민주화나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형시켰는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고 이에 드러나는 갈등을<피안도>를 통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뱀파이어는 신의 저주를 받아 태양빛을 볼 수 없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피를 빨아먹어야 ‘활동’을 유지하는 존재를 지칭한다. 이들은 보통 인간보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강하며, 유혹하는 능력과 박쥐로 변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한다. <피안도>가 가지는 동아시아적 뱀파이어 코드가 가지는 특색 있는 독자성과 의의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피안도>가 지니는 동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모습과 한국적 현실 그리고 한국적 뱀파이어 문화에 대하여 모색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어 : 아시아적 생산양식, 봉건, 농노, 뱀파이어, 좀비, 근대성, 신인류, 전통.

I.서론: <피안도> 시리즈와 영화

<피안도>시리즈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츠모토 코지(松本光司)가 2003년 8월 25일부터 주간 영 매거진(週刊ヤングマガジン)에서 연재하여 지금까지 통권 33권까지 발매된 만화로, 하드고어적인 요소가 강하고 잔혹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 서바이벌 호러 액션물이다.

원작은 누계 42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인기 작품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태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뱀파이어 영화중에 크게 흥행한 상품은 없으며, 이 영화도 역시 한국에서 개봉에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하여 화제가 되었던 전지현이 주연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할리우드 영화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 박찬욱 감독의 <박쥐>, 두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 역시 개봉이 된다고 해도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본 논문은 뱀파이어라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기호가 일본적 혹은 동아시아적인 생산양식 아래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이다. 서구문화를 일찍이 토착화해온 일본에서 보편적 기호에 가까운 뱀파이어의 이미지를 어떻게 토착화하여 해석하고 새로이 제시하는가를 일본 만화와 영화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에 변형과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영화는 만화의 내용과 시각적인 측면까지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만화와는 달리 일차적인 차원에서 승리의 결말을 맺고 있다. 완결되지 않은 만화만을 분석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완결된 영화와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뱀파이어 이미지를 그려본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특정 짓는 생산양식을 말하며, K. 마르크스는 『경제학비판요강(經濟學批判要綱, 1859)』의 서문에

* 본 논문은 2010년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춘계 종합 학술대회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수정, 발전시킨 것임.

서 “대략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 및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이 경제적 사회구성의 여러 시기로 표시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개념은 1925~1927년의 중국혁명 때 중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혁명 전략을 정할 때 사용되었다. 즉 1927년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토지문제 당 강령 초안(黨綱領草案)에서 현재의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하였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그리스·로마의 고대 노예제사회와는 다른 고대 동양사회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란 노예제의 아시아적 형태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유력하며, 2가지 이론으로 압축된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독자적인 생산양식이며 인공관개 등 일정한 자연조건 아래서 생기며 전체적 국가체제를 취한다고 보는 설과, 노예제에 선행되는 최초의 계급사회로서 동양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성립했다는 이론이 있다.¹⁾

일본근대역사가 가지는 특이성은 아마도 왕-쇼군-사무라이-농노를 잇는 지역기반의 봉건사회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전면적인 서구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구화가 과연 민주화나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형시켰는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고 이에 드러나는 문제를 <피안도>를 통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뱀파이어는 신의 저주를 받아 태양빛을 볼 수 없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피를 빨아먹어야 ‘활동’을 유지하는 존재를 지칭한다. 이들은 보통 인간보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강하며, 유혹하는 능력과 박쥐로 변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 공식만으로 뱀파이어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피안도>의 시놉시스와 뱀파이어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뱀파이어가 가진 문화적인 상징의 이미지와 용법을 살펴본다. 이후로, 줌비와 뱀파이어 그리고 드라큘라의 문법을

1) http://dic.paran.com/dic_ency.

서구적 뱀파이어의 맥락에서 알아본다. 다시 <피안도>로 돌아가 <피안도>의 뱀파이어와 이들의 서구적 용법 및 문법을 비교하면서 <피안도>가 가지는 동아시아적 뱀파이어 코드의 독자성과 의의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피안도>가 지니는 동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모습과 한국적 현실 그리고 한국적 뱀파이어 문화에 대하여 모색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II. <피안도>의 시놉시스와 아시아적 생산양식

기본적인 이야기는 고교생인 아키라(明)가 가문의 기둥이자 희망이지만 행방불명된 형 아즈시(篤)와의 관계로 시작한다. 장남과 차남, 가업을 이어야 하는 똑똑한 형 장남에 비해 항상 비교되고 구박받아 엉뚱한 상상만 하는 차남 아키라는 부모님에게 형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형이 '피안도'(彼岸島Higajima)라는 고도(孤島)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정체를 모를 미녀 레이(レイ)로부터 듣고, 형을 찾기 위해 레이의 인도에 따라 고교 졸업식 날 모은 동료들과 함께 '피안도'라는 섬으로 출발한다.

졸업여행의 기대와는 달리, '피안도'는 변형된 뱀파이어로 변한 주민들이 지배되는 땅이었고, 그들은 인도한 레이는 섬 주민인 뱀파이어를 위한 양식을 육지로부터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었다. 피안도가 만발해 있는 '피안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아키라 일행은 뱀파이어의 습격을 받고 납치 감금되어 그들로부터 양식되며 서서히 피를 빨리는 신세가 된다. '피안도'에는 그 섬을 지배하는 변종 뱀파이어인 미야비(雅)라는 모든 뱀파이어의 근원이 되는 가장 강력하면서 절대적인 봉건적인 지도자가 모두를 농노로 부리며 군림하는 곳이다.

납치되어 피를 빨리던 이들은 정체절명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시험대에 놓이는 우정, 그리고 배신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얼마 후 아키라는 형인 아즈시와 재회하는데 아즈시에게는 이 섬에 남아 뱀파이어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인 미야비와의 원한과 미야비를 처치할 방법의 단서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아키라는 아즈시와 그의 스승이 이끄는 뱀파이어에 대항하는 반 뱀파이어 주민들을 만나고 일본 전통적인 검술 수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점점 더 강해진다.

아키라 일행은 스승을 통해 이 섬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섬에는 원래 자생적인 뱀파이어 사무라이 종족들이 살고 있었고, 주민들과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좋은 봉건적인 상생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섬에 생화학실험을 하는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들 실험의 결과로 변종 뱀파이어 이면서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적인 존재인 미야비가 탄생하게 된다. 아키라의 스승은 변종되지 않은 원조 뱀파이어의 일족이다.

아키라 일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섬을 탈출하는 것이지만, 섬 주변에는 미야비의 하수인인 바다괴물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종 뱀파이어인 미야비를 죽이고 섬을 뱀파이어들로부터 구해내며 결국에는 미야비의 마법을 해체하여 이 섬을 빠져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야비는 너무나 강했고, 그 와중에 형 아츠시조차도 뱀파이어가 되어버린다. 결국 아키라가 아츠시를 비롯한 선량하고자 노력하는 뱀파이어들조차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아키라는 점점 더 강력한 정신력과 무력을 지니게 되어, 결국 미야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변종 뱀파이어를 만들어 낸 군의관이 기록해 놓은 백신을 손에 쥐게 된다.²⁾

'피안도'는 일본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 벗어날 수 없는 단절된 섬에 사는 절대봉종의 농노들과 메이지 유신과 같은 변법과 군국주의로 성립해 낸 중앙집권적인 힘으로 농노를 정치-육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자가 된 유럽식 복장의 귀족 미야비가 한축을 이룬다. 농노들은 미야비에 의해 뱀파이어가 되었으며, 이 마법적인 능력으로 힘을 얻고 미야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농노들은 봉건적인 구조에 따라 영주의 명령에 절대 봉종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이에 비해, 이들 뱀파이어에 대항한 학생들과 주민 승려는 전통적인 무술과 사랑 그리고 우정 및 휴머니즘을 기초로 하며 근대적 존재를 상징하는 변종 봉건제에 대립구도를 갖는다.

유럽 귀족 복장을 한 변종 뱀파이어인 미야비는 군국주의의 생

2) 마즈모토 코지, 설은미 역, <피안도>, 학산문화사 1-32권.

화학적인 실험의 결과로 강력하게 만들어진 존재로 잔혹하고, 야비하며 결코 죽지 않는 괴물이며 이들은 현재 일본의 정치적 구조를 상징한다. 이에 비해 아키라를 대표로 하는 반대세력은 항상 뱀파이어의 피가 몸속에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으며, 현대적인 합리성과 상상력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사상과 무술로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반대세력의 복장과 모습은 60년대 일본의 전공투를 연상케 하는 동시에 활동은 빨치산에 비견된다. 한편, 뱀파이어들은 여러 종류의 폭주한 돌연변이들을 무력으로 사용하여 반대세력을 압박한다. 만화에 등장하는 뱀파이어 점점 지배영역을 강화해 가고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이에 따라 뱀파이어를 대하는 인간들도 더 강력하고 비정하게 변해간다. 이 둘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은 인간성이 갖는 정치적인 측면과 폭력성이 악순환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야기 구조 그 자체로 보아도 이 만화에서 드러나는, 일본식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특징은 유럽식 복색을 한 봉건적인 영주인 미야비-돌연변이 뱀파이어인 사무라이들- 생산의 주체나 가축처럼 사육되는 농노는 근대 유럽과 일본 봉건주의의 접합인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정치와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봉건제도에 기초한 영주인 미야비와 그의 하수인인 사무라이들 그리고 아무런 주체적인 정치, 도덕성을 갖지 않는 농노들, 이 모든 이들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의 근원이자 동시에 군국주의의 산물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듯 서구의 옷을 입은 봉건제를 토대로 새로운 군국주의를 이루고자 한다. 군국주의에 기초한 계급적 전체주의는 개인적인 개성에서 출발하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적’으로 삼는다.³⁾ 군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이 만화에서 작가는 개인적 상상력과 전통문화인 불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작가는 현대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감수성을 갖는 신세대의 강점인 합리적인 이성과 개인적 상상력 및 우정에 기초한 연대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반성성(reflectivity)을 해결책

3)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40쪽.

으로 제시하고 있다.⁴⁾ 즉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한 개인성과 문화 그리고 긍정적인 연대가 바로 군국주의에 기초한 봉건체제를 부수는 윤리적인 기초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끊임없는 自強不息하는 태도가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열쇠로 본다.

이러한 스토리와 정치-문화적 의미를 갖는 <피안도>⁵⁾는 일본의 고단샤(講談社),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에서 흥행성이 높은 젊은 배우들을 캐스트하고 한국 감독 김태균⁶⁾이 연출하여 영화화 하였다. 일본에서 2010년 1월 9일에 개봉하여 몇 주간 흥행 1위를 차지하였으며 3월1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막하는 2010 SXSWS영화제의 SX판타스틱 부문에 초청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III. 뱀파이어가 가진 문화적인 상징, 이미지와 용법

뱀파이어는 동서를 망라하고 비교적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이고 이 존재가 보여주는 생명과 관련한 이미지 역시 보편적이며 각 문화권마다 독특한 역사적인 맥락과 이미지를 지닌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꿈에 등장해 사람의 精을 갈취하는 몽마인 잉큐부스, 서큐부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미아를 들 수 있으며, 히브리인의 릴리스, 이슬람의 구울, 중국의 강시나 일본의 한냐 등이 그것이다⁷⁾.

-
- 4) 세계화와 반성성에 대해서는 최석호의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한국학술정보, 2005, 서문을 보라.
- 5) 김태균(キム・テギョン), 원 작 : 마즈모토 코지(松本光司)<Higajima>, 이시구로 히데오(石黒英雄), 와타나베 다이(渡辺大), 미즈카와 아사미(水川あさみ), 야마모토 코지(山本耕史) 유게 토모히사(弓削智久), 모리와키 후미토(森脇史登), 아다치 오사무(足立理), 한다 마사야(半田晶也), 타키모토 미오리(瀧本美織)각 본 : 오오이시 테츠야(大石哲也), 촬 영 : 쿠기미야 신지(釘宮慎治), 조 명 : 타나베 히로시(田辺浩), 편 집 : 모리시타 히로아키(森下博昭), 미 술 : 나카자와 가즈미(中澤克巳), 음 악 : 사와노 히로유키(澤野弘之),노 래 : 9mm Parabellum Bullet, 제 작 : 고단샤(講談社),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배 급 :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상영시간 : 122분, 개봉일자 : (일) 2010년 1월 9일.
- 6) 김태균, <박봉곤 가출사건>으로 데뷔, <키스할까요>, <화산고>, <늑대의 유혹>, <피안도>, <백만장자의 첫사랑>, <크로싱> 연출.
- 7) 한혜원, 『뱀파이어 연대기』 살림지식총서 147, 78쪽.

뱀파이어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 타인의 생명인 피를 통해 생명을 연명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⁸⁾, 이를 충족시킬만한 진정한 근대적인 뱀파이어로는 역시 브람 스토커에 의해서 소개된 드라큘라 백작인 블라드Blad를 들 수 있다⁹⁾.

브람 스토커는 인간의 피를 빨아 먹으며 저주받은 영원한 생명을 연명하는 드라큘라에 대해서 “힘은 남자 20명을 합친 것 같고 박쥐, 쥐, 늑대 그리고 안개로 변신이 가능하다.” 고 묘사하고 있으며 “유혹seduction”의 능력을 지닌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진짜 피를 빨아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가 아니라 언제 어느 장소에 누가 뱀파이어가 되는가하는 것과, 뱀파이어 유행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킨 곳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톨릭 교회에서였다. 특히 페스트의 창궐의 원인으로 마녀와 뱀파이어들이 지목되었고, 교회는 이들이 바로 전염병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였다. 교회는 많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태웠는데, 당시 페스트로 죽은 시체들이 방치되는 현상에서, 이 조치는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주장했다.¹⁰⁾

최근에도 뱀파이어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악의 축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비근하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호도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뱀파이어사냥도 겹쳐져 있다.

최근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넘어 뱀파이어가 지닌 로맨스적인 측면을 강조한 저변문화가 더 떠오르고 있다. 뱀파이어에

8) 한혜원, 앞의 책, 76쪽.

9) 그 외에 <뱀파이어> 3부작, <블레이드> 3부작, 최근 개봉작인 <데이브레이크> 등에서 나타난 뱀파이어의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드라큘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0) 뱀파이어에 대한 개념과 역사에 관하여서는 Summers, Montague (2003). *The Vampire in Europe 1929*. Kessinger Publishing, 2003. Nowosadtko, Jutta (2004). Der "Vampyrus Serviensis" und sein Habitat: Impressionen von der österreichischen Militärgränze. In: Militär und Gesellschaft in der Frühen Neuzeit. 8 (2004). Heft 2. Universitätsverlag Potsdam. Bunson, Matthew (1993). *The Vampire Encyclopedia*. London: Thames & Hudson. 참조.

대한 저변문화적인 인기는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 중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뱀파이어뿐』(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Vampire)¹¹⁾와 인기 TV드라마 『슈퍼 네츄럴』¹²⁾, 『X 파일』¹³⁾, 『The Blade』¹⁴⁾, 그리고 『Twilight』¹⁵⁾ 3부작 등이 뱀파이어를 다룬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SF적인 측면을 강조한 『Daybreakers』¹⁶⁾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죽지 않은 것’ 으로는 뱀파이어로 번역되는 감염을 통해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인 뱀파이어Vampire와 죽었다가 주술사의 의식이나 감염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인 좀비Zombie가 있다. 좀비는 뱀파이어에 비해 많이 다른 존재로 뱀파이어는 전염병을 퍼트리는 숙주라면 좀비는 이미 병에 다 걸려버려 더 이상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사회 그 자체를 말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마법으로 세뇌되어 앞면만 바라보고 사는 플라톤의 동굴 안은 자율적인 의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좀비의 세상이다.

그러면 서구사회에서의 뱀파이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뱀파이어인 드라큘라의 이미지는 기독교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브람 스토커 소설의 주인공인 블라드

- 11) Sparks, Kerrelyn,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Vampire*, Harper Collins, 2008.
- 12) McG and Peter Johnson with writer/executive producer/creator Eric Kripke and director/executive producer David Nutter. *SUPERNATURAL* Warner Bros. Television Production Inc., Wonderland Sound and Vision.
- 13) Chris Carter, *The X-Files*, Fox network 1993-2002.
- 14) *Blade*, Marvel Comics (1973), Directed by Stephen Norrington, Produced by Peter Frankfort, Wesley Snipes, Robert Engelman, Andrew J. Horne, Written by Screenplay:David S. Goyer, Comic book: Marv Wolfman, Gene Colan, Starring Wesley Snipes, Stephen Dorff, Kris Kristofferson, Release date(s) August 21, 1998, Running time 120 min. 뱀파이어 Dampyre는 인간과 뱀파이어의 중간에서 태어난 존재를 의미하며, 햇빛 등 보통 뱀파이어가 가지는 약점을 갖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15) Directed by Catherine Hardwicke, Produced by Mark Morgan, Greg Mooradian, Wyck Godfrey, Written by Melissa Rosenberg, Release date(s) November 21, 2008 (2008-11-21), Running time 121 minutes.
- 16) *Daybreakers*, Directed by Michael Spierig, Peter Spierig, Produced by Chris Brown, Sean Furst, Bryan Furst, Written by Peter Spierig, Michael Spierig, Ethan Hawke, Willem Dafoe, Claudia Karvan, Sam Neill, Release date(s) 11 September 2009, Running time 98 minutes. Lionsgate.

Blad는 “드라큘라(Dracula: Order of Dragon)”라는 기사단을 이끌고 십자군전쟁에 참가하여 터키와 오랫동안 전쟁을 한 루마니아의 실존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트란실바니아의 영주인 블라드의 지독한 잔인성과 학정을 모티브로 하여 그 지역의 토속종교의 이야기가 생겨났고, 이를 브람 스토커는 소설 드라큘라 Dracula를 통해 실존인물인 블라드를 어둠의 존재인 뱀파이어로 변환시키고 생명의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와 대치되는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예수의 상징인 빛과 십자가를 싫어하고 치료와 소독의 의미를 지니는 은Silver 그리고 마늘을 기피하며, 타인의 피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영생을 사는 자, 예수와는 정반대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¹⁷⁾. 즉 드라큘라란 생명의 존재이자 유럽의 정신적인 통합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예수와 반대편에 위치한 반문명적인 토착종교에서 만들어 낸 보편적이기 보다는 지역적이며 문명화를 거부하는 저항의 존재이다. 그렇기에 드라큘라는 하위문화의 탈출구로서 상징을 지니고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표적으로 역할을 한다.¹⁸⁾

IV. 좀비와 뱀파이어 그리고 드라큘라의 문법

<피안도>의 뱀파이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구적인 의미의 뱀파이어라기보다는 ‘좀비’와 ‘뱀파이어’가 섞여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동 아시아적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서구사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냥용 혹은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마녀들/죽지 않은 것The Undeads인 좀비와 뱀파이어의 특징과 대별적인 차이를 알아본다. 즉, 뱀파이어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현대 저변문화에 기승을 부리는 비슷한 존재인 좀비와 비교를 해 본다.

뱀파이어Vampire와 좀비Zombie는 죽음을 사는 존재Undeads라는

17) Leonard Wolf, The Hughes, William. *Beyond Dracula: Bram Stoker's Fiction and its Cultural Contexts*, Basingstoke: Macmillan, 2004.

18) 이호영 「피, 생명 그리고 사랑-<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1992)의 이미지」 『생명문화』 11집. 2-3쪽.

측면은 비슷하지만 영화 이미지 상에서 뱀파이어와 좀비는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를 통해 뱀파이어만이 갖는 특징과 대중적 인기의 이유를 명료하게 보일 수 있다.

먼저, 둘 모두 살아있는 인간에서 감염으로 피가 오염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비록 움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변이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 하지만 좀비의 경우 알 수 없는 병원균으로 인해 집단적인 발병이 일어나고 이에 감염되어 좀비가 된 ‘죽음’ 들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공격하여 2차 감염이 일으켜 새로운 좀비를 만든다. 이와 달리 뱀파이어의 발병은 신화적인 기원을 가지며, 신화적인 원인으로 발병한 뱀파이어가 감염 대상을 선별하고 대상과 혈관을 통한 피의 교환으로 이차 감염을 일으킨다. 즉, 앞의 좀비 병원체는 마치 광견병이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지만¹⁹⁾ 뱀파이어 병원체는 에이즈Aids나 매독처럼 직접적인 성적행위나 체액교환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는 차이를 지닌다. 다시 말해 뱀파이어병원체의 특징은 마치 성병 같은 양태를 지닌다. 병원균확산의 측면으로 뱀파이어의 특징을 드러내자면, 좀비 병원균은 사회, 집단적이며 무작위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지만 뱀파이어의 병원균은 밤에만 한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선택된 상대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전염된다.²⁰⁾

다음 두 이미지의 사회적인 기원을 통해 뱀파이어가 지니는 특징을 보자면, 조지 로메로George Romero²¹⁾에 의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춘 좀비는 1950-60년대의 냉전시대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이들은 마치 집단적으로 거주하지만 사회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보인다. 즉, 최초로 병원균을 퍼트린 숙주와 감염자 사이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종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횡적인 시민 사회의 평등적인 관계를 보인다.²²⁾

19) Hines, Terence; *Zombies and Tetrodotoxin*; Skeptical Inquirer; May/June 2008; Volume 32, Issue 3; Pages 60-62.

20) David J. Skal, *Vampires: Encounters With The Undead*: 2001, 47-8.

21) George Romero (born February 4, 1940) is a American-Canadian film director, screenwriter, and editor "Godfather of all Zombies."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A._Romero.

22) 이호영 앞의 논문. 7쪽.

이에 비해 계급사회였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탄생한 드라클라는 그 신분 자체가 백작Count이며 신부와 하인 그리고 추종자 및 영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노 등 모든 요소를 지닌다. 즉, 철저히 봉건제도에 근거한 중적인 계급사회의 귀족의 이미지를 갖추었거나 갖추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숙주인 뱀파이어가 계급사회의 정점인 군주의 신분이기 때문에 영주에게 신분적인 문제가 생기면 계급에 기초한 사회가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원인에 의해 생긴 감염의 숙주가 사라지면 이차 감염자들의 질병 역시 동시에 사라진다. 이러한 감염과 치유의 메커니즘으로 보아 뱀파이어가 퍼트리는 병은 계급 사회적 모습을 지닌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좀비’라는 개념 자체는 서아프리카의 부두교에 기원을 하여 아메리카로 이주한 흑인들의 민속종교와 저변문화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념이지만, 실질적인 영화적 이미지에서 좀비는 앞에서 말한 흑인들의 종교나 의식을 넘어 인공위성의 추락, 생물학실험실의 파괴와 유출²⁴⁾ 등 현대과학을 잘못 다룬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적 재앙이라는 진단을 기본적인 이미지로 갖는다. 때문에 좀비 영화에서는 백신의 개발과 치료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한다.²⁵⁾

뱀파이어는 그 본질 자체로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르지만 브람 스토커가 묘사한 드라클라는 이교도인 터키인의 음모로 아내의 자살하고 자살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톨릭의 교리에 대한 반발로 예수교에 맞서서 항변하기로 결심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저주받아 영원히 살지도 죽지 않는 존재인 뱀파이어가 된다. 블라드가 지니는 이러한 신화적인 모습 때문에 드라클라는 기독교의 예수와 이항 대립적Binary Opposition 인 이미지로 형상화된다.²⁶⁾

23) Freeland, Cynthia A., *The Naked and the Undead: Evil and the Appeal of Horror*. Westview Press. 2000.

24) Paul Anderson, *Resident Evil*, Distributed by Screen Gems, 15 March 2002.

25) Richard Matheson, *I Am the Legend*, Novel, Direct by, Francis Lawrence, Distributed by Warner Bros. Dec.14, 2007.

육체적 변이와 능력으로 보아서 사실상 좀비는 보통 인간에 비해 떨어진다. 일단 좀비가 되면 이성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모든 감정에 우선하며 생리적인 욕망은 ‘굶주림Hunger’로 한정된다.²⁷⁾ 그래서 영화상의 좀비가 원하는 것은 ‘신선한 고기Fresh Meat’²⁸⁾를 먹어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밤의 귀족’인 뱀파이어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육체적 능력을 지닌 신적인 존재이다. 뱀파이어가 지니는 욕구는 “사랑Lust”과 “갈망Thirsty”이며 이 생명과 등가로 대입되는 피에 대한 갈망과 대한 저주의 근본 원인인 아내/연인에 대한 사랑이 뱀파이어와 좀비를 가르는 중대한 변별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마지막으로 뱀파이어를 저변문화의 중심적 아이콘으로 만든 결정적인 차이는, 좀비가 전혀 성적 매력을 지니지 못하지만 뱀파이어는 매력과 유혹하는 능력으로 엄청난 성적 매력을 본능적으로 지닌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좀비영화가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용되는 반면, 뱀파이어는 여성의 로맨틱한 환상을 강조하는 하는 문학 장르인 할리퀸Harlequin 소설에서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앞에서 언급한 케렐린Kerrellyn Sparks의 소설『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Vampire』역시 뱀파이어와의 비극적 로맨스를 강조한 할리퀸 소설이며 최근에 개봉한 영화 『트왈라잇Twilight 2008』의 후속작인 『뉴문 New Moon 2009』과 이를 잇는 시리즈 역시 여성 감독이 제작을 담당하여 여성적인 로맨스를 강조하는 백마를 탄 기사를 대체할 만한 성적 매력의 화신인 뱀파이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신의 여자 친구를 악의에 찬 다른 뱀파이어로부터 지킨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즉, 좀비와 뱀파이어의 성격차이로 문학적인 장르의 차이 및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이까지 만들어낸다. 좀비물은 디스토피아

26) 이호영 앞의 논문. 7쪽.

27) Chalmers, David.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vol. 2, no. 3, pp. 200-219를 좀비의 의식과 관련한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28) Lucio Fulci, *Zombie Fresh Eater*, Produced by Fabrizio De Angelis, Ugo Tucci, Written by Elisa Briganti, July, 1980, Running time 91 min.

29) Bram Stoker, *Count Dracula*, Penguin, 2003.

를 다룬 SF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뱀파이어는 어떤 특정 과거의 사연을 지닌 현재를 사는 개인의 실존성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짙다.³⁰⁾

이런 뱀파이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는 프란시스 F.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감독이 제작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이다. 코폴라는 1992년 11월 지금까지 나온 드라큘라 영화 가운데 가장 원작에 충실한 작품을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Bram Stoker's Dracula』³¹⁾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여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다.

이 영화를 이야기 하지 전에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왜 하필이면 이 때 당시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코폴라는 지금까지 B급영화에서만 다루던 드라큘라라는 주제를 초호화급 배역과 엄청난 자본을 동원하여 만들었으며, 이 시기에 이러한 진부한 주제의 영화가 공전의 흥행에 성공했는가 하는 점이다. 뱀파이어를 다룬 고딕호러Gothic Horror는 이미 사회적 필연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즉, 뱀파이어로 지칭되는 질병인 공기(안개)를 통해 감염되는 폐결핵과 개인적인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피의 질병인 매독은 페니실린의 개발과 함께 종언을 고한 것이다. 그에 비해 나치의 히틀러를 비롯한 구소련 연방 및 중공 등 공산권 등 전체주의 사회와의 냉전 상황아래 극도의 자본주의화로 생길 수 있는 집단 광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비영화의 유행을 선도하였으며 개인화된 사회의 정신적 문제점은 히치콕이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 주었듯 싸이코패스를 위주로 하는 공포물로 대치되었다.³²⁾ 하지만 1980년대 말에서 소련이 몰락하는 1990년대 초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후천적면역결핍증AIDS라는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새로운 종류의 성병이 생겨났고 이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발언권이 커졌으며 인종차별, 게이-레즈비언 문제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불거졌으며 성적 측면에서 개방적이던 태도에서 폐쇄적으로 후퇴하게 된다. 마치 1890년대 런던에서 사이

30) 이호영, 앞의 논문. 4쪽.

31) Francis Ford Coppola, *Bram Stoker's Dracula*, Columbia Pictures 1992.

32) Chalmers, David,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vol. 2, no. 3, 1995, pp. 200-219.

코 연쇄살인마 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공포에 이어 창궐한 섹스와 관련된 질병과 공기를 통한 감염되는 폐결핵의 창궐을 계기로 브람 스토커의 소설이 흥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에이즈로 사랑과 그리고 생명인 피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반향이 바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이다.³³⁾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피는 생명이다 The Blood Is The Life.”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 영화의 주제 역시 다르지 않다. 80년대 발견된 질병인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으로³⁴⁾ 인해 피와 질병이 사회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이 지배하던 시대에 감독은 피와 질병이 아닌 피와 생명에 관하여 감독 나름의 방식인 진정한 개인적인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파우스트적인 구조와 결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마치 영국식 <피안도>같은 구조를 지닌다. 이 영화/소설의 기본 세팅에는 트랜실바니아라는 산속에 갇힌 중세의 세계, 백작이며 영주인 드라큘라와 그의 하인 및 영지인인 농노들이 있다. 뱀파이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모순적인 교리와 관련되어있고, 여타 귀신을 주제로 하는 공포영화와 마찬가지로 뱀파이어 영화에서도 가끔은 가톨릭 신부가 등장한다.³⁵⁾ 하지만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는 신부가 아니라 반 헬싱Abraham Van Helsing³⁶⁾이라는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과학자가 중심이 되어 이전에 있었던 대립의 관계인 신-드라큘라의 갈등을 해소한다.

<피안도>라는 만화와 영화가 말하는 뱀파이어와 좀비는 동아시아가 가지는 봉건성과 정치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해 본다.

33) *Newsweek*, Nov. 1992.

34)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 “HIV” .

35) William Peter Blatty, *Exorcist*, Directed by William Friedkin, 1973.

36) 반 헬싱은 이후 마벨 코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일본 만가 뱀파이어 D의 기본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여러 새로운 해석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V. 다시 '피안도'

'피안도'에는 크게 두 가지 뱀파이어가 대립한다. 미야비라는 유럽식 복색을 한 초강력 불사신 군국주의 산물인 변형 뱀파이어와 그의 피를 받아 전염된 농부 복장의 좀비 같은 피지배 뱀파이어가 하나이고,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적인 인간 공존형 뱀파이어가 또 하나의 축이다.

'피안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변형이다. 마치 일본 망가<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에서 순종 뱀파이어인 블러드가 미군부대지역에서 변형된 뱀파이어를 사냥하듯 '피안도'에서도 변형과 순수는 투쟁하고 변형은 외세에 의해 왜곡된 전통과 군국주가 만든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피안도'에서 변형을 대표하는 인물인 미야비는 결코 죽지 않는 특이한 귀족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예전부터 있던 '피안도'의 뱀파이어 가족사건에도 미야비는 유럽식 복색을 하고 있다. 이차대전 때 군이 들어와서 한 실험에서 유일하게 미야비가 살아남아 변종을 일으킨다. 미야비의 특징은 얼굴은 일본식이지만 복색과 머리모양도 서구식이다. 마치 만화-만화영화-영화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에서 나오는 사진에 사람들이 유럽식 복색을 하듯 명확하게 이들은 뱀파이어라는 것이 서구에서 전래한 것임과 변형도 역시 서구에 근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일본적인 봉건사회 구조에 서구를 수입하여 근대적인 군국주의를 마련한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니는 핏줄은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에서도 그러하듯, 일본 토종에서 근원을 찾는다. 원 일본에 뱀파이어가 있었고 이에 전염된 자들 가운데 후에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새로이 서구적인 족속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 중 적응한 돌연변이가 살아남았다는 논점이다. 마치 일본 역사가 그러하듯, 이들 서구파 사무라이들은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인 봉건 구조는 그대로 방기하고, 일본 농민 복색을 한 사람들을 먹이로, 부하로 삼고 자신의 옷만 서구적으로 갈아입는다. 이러한 구조는 전후 일본 망가에 많이 들어나는데, <마징가>에 나오는 헬박사나 아수라백작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완벽한 피를 지니지 못한 뱀파이어인 부하 농노들이 폭주를 일으

켜 괴물이나 기생수로 돌연변이 하여 변하게 되면, 서구과 뱀파이어에게 여러모로 이용되다 결국에는 폐기된다.

다음으로, 뱀파이어에 맞선 인간들 살펴보면, F. 코플라는 드라쿨라와 맞서는 인간으로 반 헬싱 Van Helsing을 제시한다. 반 헬싱은 의사이자 과학에 충실한 과학자의 이미지를 가지며 과학 지상주의의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이며 과학을 무기로 싸우는 사냥꾼이다. 반 헬싱은 더 이상 종교를 종교의 영역에 놔두지 않고, 종교를 과학적인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19세기적인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³⁷⁾

이에 비해 미야비와 맞서는 아츠시, 아키라 형제는 원조 뱀파이어 출신의 스님에게 일본 비전의 검술을 배운다. 이들은 변형 드라쿨라의 비정함에 맞서면서 원한과 복수가 주를 이루어 결국 다정한 성격의 아키라는 친구를 빼고 결국 형까지 벨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³⁸⁾ '피안도'에서는 막강한 적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 가장 일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무라이적이고 선불교적인 비정함을 강조한다. 마치 막강한 제국인 미국에 대해 가미가제 같은 정신력의 무한 가속을 강요하는 느낌으로 비장미를 위주로 정신무장에 대한 강조가 짙다.³⁹⁾ 즉, 근대적인 일본정치의 비인간적인 봉건주의에 맞서기 위해 들고 나온 인본주의가 전통을 만나, 결국 적과 똑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쉽게 <드라쿨라>와 대비 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을 대변하는 드라쿨라가 근대성을 대변하는 과학자 반 헬싱과 대결이 <드라쿨라>라면 '피안도'는 메이지 유신으로 대변되는 근대성이라는 변종이 전통의 반격을 받는다고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주의자인 반 헬싱이 전통을 인정하고 그와 닮아가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드라쿨라의 부하들과 미야비의 농노들과의 차이이다. 드라쿨라의 부하들은 모두 뱀파이어라는 한계 내

37) 이호영, 앞의 논문 9쪽.

38)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정혁현 역, 『전쟁과 선』, 인간사랑, 2009.참조. 이 책에 의하면 이는 아마도 선불교의 話頭 중 하나인 殺佛殺祖의 정신의 반향인 듯하다.

39)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37쪽.

에서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하지만 '피안도'에서 농노들은 앞에서 설명한 좀비에서 보이듯 자율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돌연변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다. 뱀파이어 문학이 개인적인 비밀과 실존적 갈등 그리고 성적인 로맨스를 제시했다면 '피안도'에서 나오는 변형 드라큘라와 농노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로맨스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뇌된 집단 형태인 좀비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안도>는 고딕 호러라기보다는 이념성과 투쟁성을 중심으로 극을 설정하는 좀비물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결국 우리는 <피안도>를 통해서 동아시아 최첨단 서구적인 근대화의 현장이자 가장 폐쇄적인 세계인 일본에서 제시하는 근대적인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일본적인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취하는 것은 유럽의 옷을 입었지만 결코 유럽이 될 수 없는 일본적 봉건성을 지닌 유럽을 말한다. 정치와 경제 형태 역시 전통적인 모습을 취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걸모습만은 유럽을 지향하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유럽식 옷을 입은 강력한 영주 같은 지도자가 장악하고 봉건적 사고 이상을 갖는 일본에서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로맨스나 실존적 갈등은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형 괴물이나 기생수로 돌연변이 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사용되다 폭사하고 마는 존재로 그려진다. 변형괴수는 군국주의적인 집단주의에 대항하는 개인의 인간적인 지향성과 그 말로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결국 <피안도>는 뱀파이어 만화를 표방하지만 일본의 정치경제적 집단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과 이에 대한 투쟁을 고취하는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뱀파이어에 대항해 인간을 지키고자 반격을 피하는 전통의 세력은 불교와 전통사상으로 무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인물인 아키라가 지니는 근본적인 힘은 상당히 추상인 소위 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신인류의 전유물인 '상상력'이다. 아키라와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휴머니스트라기보다는 미야비라는 정치적인 독재자에 대항하는 폭도 혹은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지닌다. 이들의 복장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마치 1968년도

일본의 전공투 시대의 시위대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회의와 투쟁을 하고 마치 빨치산의 게릴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전제군주에 맞선 빨치산들은 그 이념과는 달리 전제군주만큼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강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만화가 드러내는 일본적인 뱀파이어는 뱀파이어 대 인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메이지 유신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군국주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봉건주의 귀족과 개인적 윤리를 중시하는 사무라이주의라는 전통적으로 대립해온 두 다른 입장의 현대적인 대결로 보인다.

VI. 결론: 우리 뱀파이어의 모색

뱀파이어라는 개념과 이미지는 처음에 이야기 했듯 상당히 보편적인 이미지와 의미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서구에서 확립한 그 문법을 고수하며 따라 갈 필요는 없지만,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문법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문법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피안도>는 일본이라는 문명이 지향해 온 오랜 서구화의 전통을 표면화 한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만화와 소설로 서구적인 뱀파이어라는 주제를 변형하여 일본 전통적인 그림과 해석을 덧씌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피안도>가 지니는 뱀파이어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해석은 일정 부분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감과 호응 그리고 ‘일본’이라는 역사적 구성체가 지니는 독특한 의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타당하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할리우드식 뱀파이어 영화 이외에는 <박쥐>같이 개인적인 로맨스나 양심의 이야기한 영화가 그리 큰 환영받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우리나라에 두 개의 뱀파이어 영화가 제작 상영되었다. <흡혈형사 나도열>⁴⁰⁾과 <박쥐>⁴¹⁾가 그것

40) <흡혈형사 나도열>, 이시명 감독, 김수로(나도열) 출연, 한국, 110 분, 개봉 2006.02.09.

41) <박쥐>, 박찬욱 감독, 송강호(신부, 상현), 김옥빈(태주) 출연, 133 분, 개봉 2009.04.30.

이다. 앞의 영화는 사실상 미국 TV드라마에서 크게 나간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국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영구와 땡칠이>⁴²⁾에 로맨스와 코미디를 곁들여 성인판으로 제작한 코메디 작품이다. 다음으로 <박쥐>는 사실상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을 지닌다.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는 장르로는 로맨스, 즉, 대부분 고딕 공포에 속하거나 반 헬싱을 중심으로 다루면 어드벤처물에 속한다. 심지어 뱀파이어 영화 가운데 가장 반성적인 모습을 지닌다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로드무비의 성격을 지니지만, <박쥐>는 사실상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약간의 고어적인 측면을 지닌 단순 멜로드라마라는데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박쥐>는 개인적인 욕망의 실존적인 모습과 양심의 문제를 다룬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전직 신부였다고 하더라도 뱀파이어로 존재 양상이 바뀐 이상 더 이상 ‘사랑’이나 ‘애욕’의 갈망이 아닌 양심의 가책을 중심으로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은 필연성이 부족하다. 비연속성을 의미하는 변신 혹은 변태의 결말에서 신부로서의 양심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영화의 기도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코폴라의 영화가 보여 준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반동의 급등 같은 시대적인 문제 혹은 봉건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사회에 대항한 대항문화의 투쟁을 제시한 <피안도>와 달리 어떤 사회적이고 개인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이 필연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Higajima>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피안도>역시 위의 이야기대로 라면 결코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에 대해 김태균 감독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한 듯하다. 김태균 감독의 말을 들어본다.

“마츠모토 코지의 동명 베스트셀러 만화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이번 영화는 김태균 감독을 필두로 전부 일본 스태프와 배우를 기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왜 '<피안도>'는 그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흔한 한국인 배우가 없는 건 어떤 이유일까?

42) <영구와 땡칠이>, 남기남 감독, 심형래(영구) 출연. 한국, 97 분, 개봉 1989.에서도 드라큘라가 중심인물로 나온다.

▶미코토&바사라의 스미지 미야케 대표는 "정확한 타깃이 필요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원작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 한국인이 등장하는 캐릭터를 배제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한국영화로 인정받기 위해 제작단계부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영화제작 단계부터 타깃을 일본을 중심으로 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메인 시장을 일본으로 했다. 두 번째 시장으로 월드 와이드, 마지막 시장을 한국으로 생각했다. “43)

애욕과 갈등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승화를 모티브를 가지는 서양의 뱀파이어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자기충분적인 연속성과 의미를 지니기에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다가간다. 근대적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세계인 일본에서 뱀파이어는 서구의 얼굴을 한 전통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현대의 극한대립이라는 의미를 새로이 해석하면서 의미를 찾아간다.

앞에서 강조하였듯, 서양의 뱀파이어 이야기는 피와 생명을 모티브로 하여 영생과 사랑을 조잡한다. 일본의 경우, 피와 생명을 모티브로 하여 민주주의인 척하는 얼굴만 바꾼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맞서는 신인류에게 근대화로 기만하고 왜곡된 일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전의를 불태운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피와 생명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맞서야하는 개인적 필연성을 보이는 작품, 이전에 다른 문화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해석과 이미지를 이 피와 생명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피안도>의 구조에서 구하고 싶다. <피안도>에서 구조화하는 일본사회의 모습과 같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뱀파이어-좀비는 <박쥐>류의 개인적인 양심적인 갈등 보다는 군국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유교문화에 기초한 서열사회를 뱀파이어-좀비의 모습으로 모델화하고 이에 대항하는 근대적인 합리성을 지닌 참여하는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 더 타당하

43)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09.10.05 11:42.

다. 특히 서열화를 통한 부와 권력의 재창조를 이룩하는 봉건적인 구조를 지닌 유교문화에 대한 저항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통이 주입한 이데올로기와 별 반 다를 것이 없는 가톨릭의 ‘양심론’인 <박쥐>라는 구태의연한 인간관이다. 이러한 인간관으로는 새로운 인간을 그릴 수도 잘못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결코 개선 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를 탐관오리로 이미지화 하였고 최근의 정치-경제상황과 “월가를 점령하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된 시민의 저항의 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적 정치-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간의 모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할 주제와 소재를 지닌 매체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가능성을 <피안도>에서 보았다.

참고문헌

- 최석호,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한국학술정보, 2005.
 한혜원, 『뱀파이어 연대기』, 살림지식총서 147.
 이호영, ‘피, 생명 그리고 사랑’,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1992)의 이미지, 『생명문화』 11.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 “porphyrias”, “HIV” .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09.10.05 11:42.
 Bartlett, Wayne; Flavia Idriceanu. *Legends of Blood: The Vampire in History and Myth*. London, 2005, NPI Media Group.
Blade, originally in comic books by Marvel Comics, 1973.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Penguin, 1847.
 Lord Byron, *The Giaour*.
 Chalmers, David. 1995.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vol. 2, no. 3.
 Chris Carter, *The X-Files*, Fox network, 1993-2002.
 Francis Ford Coppola, *Bram Stoker's Dracula*, Columbia Pictures 1992.
 Freeland, Cynthia A., *The Naked and the Undead: Evil and the Appeal of Horror*. Westview Press. 2000.
 Dalby, Richard and Hughes, William. *Bram Stoker: A Bibliography*, Westcliff-on-Sea: Desert Island Books, 2005.
 David Nutter. *SUPERNATURAL* Warner Bros. 2003-2008

- J. Derrida, *Plato's Pharmacy in Dissemination*, 1972, Athlone Press, London, 1981
- Jack Goody, *The Domestication of the Savag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Christopher Frayling, *Vampyres: Lord Byron to Count Dracula*, London, 1992.
- J.W. Goethe, *The Bride of Corinth*, 1797.
- Hughes, William. *Beyond Dracula: Bram Stoker's Fiction and its Cultural Contexts*, Houghton Mifflin Company, 1994.
- Sparks, Kerrelyn,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Vampire*, HarperCollins, 2008.
- Leonard Wolf, Leonard. *The Essential Dracula*. ibooks, inc., 2004.
- Leonard Wolf, The Hughes, William. *Beyond Dracula: Bram Stoker's Fiction and its Cultural Contexts*, Basingstoke: Macmillan, 2004.
- McNally, Raymond T. & Florescu, Radu. *In Search of Dracula*. Basingstoke: Macmillan, 2000.
- Nowosadtko, Jutta. Der "*Vampyrus Serviensis*" und sein Habitat: Impressionen von der österreichischen Militärgränze. In: *Militär und Gesellschaft in der Frühen Neuzeit*. 8. 2004.
- Bunson, Matthew, Universitätsverlag Potsdam. *The Vampire Encyclopedia*. London: Thames & Hudson. 1993.
- Summers, Montague . *The Vampire in Europe 1929*. Kessinger Publishing, 2003.
- George A. Romero, *Night of the Living Dead* (Romero, 1968),
 ----- *Dawn of the Dead* (Romero, 1978),
 ----- *Day of the Dead* (Romero, 1985)
- David J. Skal, *Vampires: Encounters With The Undead*: 2001.
- Bram Stoker's *Notes for Dracula: A Facsimile Edition* Jefferson NC & London, 2007.
- Bram Stoker, *Count Dracula*, Penguin, 2003.
- Hines, Terence; *Zombies and Tetrodotoxin*; *Skeptical Inquirer*; May/June 2008; Volume 32, 3.
- Wikipedia, "Vampire" "George_A._Romero" .
 Newsweek, Nov. 1992.
- 松本光司, *Higajima*, 週刊ヤングマガジン, 2004.
- <영구와 맹칠이>, 남기남 감독, 한국, 97 분, 개봉 1989.
- <흡혈형사 나도열>, 이시명 감독, 한국, 110 분, 개봉 2006.02.09.
- <박쥐>, 박찬욱 감독, 한국, 133 분, 개봉 2009.04.30.

ABSTRACT

The Asian mode of production of Japanese Manga Higajima -The protests of the Political Structure and Asian mode of production

Ho Young Lee

The Vampire has relatively universal images in through the cultural and verbal usages. The comic Higajima and movie display the latest image of Japanese Vampire of asian mode of production. After the Meiji political reformation of 18th Century, Japanese had rapidly changed into European style in every places. However, the Higajima is denied the structural changes, it is insisted that the changing is only the skin deep and colour of hair but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is same as feudal Japan. Asian mode of production is claimed by Karl Marx, according to him, it is before the historical developing model in Europe and it was controversial. The major character of modern Japanese history would be the change of hierarchy of king-shogun-samurai-peasant based on the regional ground. The feudal structure is changed by the Meiji reformation and Japan was rushed for the westernized country rather than the asian mode of production. However, Higajima argued that the changing is just the clothes of ruler but the democracy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lost in that reformation. Vampire is cursed creature that cannot see the sun and it has not the functioned as a human organ. For human it is dead but this creature actively moves and stronger than human and much superior than human in every aspects. It is managed the feeding through the suck the human blood and power to seduction. Even it is not exist, it is quite symbolic phenomenon of cultural usage of superior entity of chain of feeding. The aim of this paper is display the symbolic code Vampire of Asian mode of production in Higajima and political struggling of Japan in actual. To search of the cultural meaning and possibility of the Korean solution of modernity.

Keywords : Asian mode of production, feudal, Vampire, Zombie, modernity, tradition.

이호영

서강대학교 강사

(110-803) 서울 종로구 구기동 27-2, CJ빌리지 A201

Tel : 010-9129-9452, 02-720-5253

wesyuzna@gmail.com

논문투고일 : 2011.11.15

심사종료일 : 2011.12.01

게재확정일 : 2011.12.17